



가족계획소식

한 대 우
발행인
인쇄인 김 기 두
발행소·가족계획연구원
서울서대문구 녹번동115
(우편번호 120-02)
© 8003~7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동안 가족계획사업은 어떻게 달라지나?

① 인구·가족계획총괄

본원고는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된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가족계획사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써 일상부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계획요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창의력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안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② 최종년도의 인구규모와 증가율(총괄모형)

최근에 발표된 확정된 계획안에 의한 4차 5개년 계획기간(1977~1981)은 인구·가족계획사업을 보다 강화해 최종년도인 1981년에는 총인구 3천 8백 80만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1.6프로로 추정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지표를 보면 ~81년까지 연 평균 실질 성장률은 2.4%로, 1인당 국민소득(GNP)은 1976년 1.7배로, 1인당 국민소득(GNP)을 2.4배(5백 30달러에서 1천 2백 84달러로 상승)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위 주요지표에 의하면 75~81년 사이에 우리 나라 인구는 3천 5백 30만에서 3천 8백 80만으로 증가하여 최종년도(1981년)에는 1975년 인구 규모보다 10프로가 늘어난다.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인구 규모와 증가율·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 위	4 차 5개년 계획의 주요지표				
		1975	1981	배수	1977~81 평균(%)	증가율(%)
국민총생산(GNP)	10억불	100	18.7	31.1	1.7	9.0
인구	백만人	35.3	38.8	1.1	1.6	7.3
률		530	1,284	2.4		

구 분	단 위	인구증가율 목표				
		1977	1978	1979	1980	1981
인구증가율(%)	100명당	3.64	3.70	3.76	3.82	3.88
	100명당	23.49	23.58	23.78	23.88	23.98
	1.55	1.71	1.84	1.96	2.01	2.15

구 분	단 위	인구증가율 목표				
		1977	1978	1979	1980	1981
인구증가율(%)	100명당	1.00	1.00	1.00	1.00	1.00
	1.6	1.6	1.6	1.6	1.6	1.6

〈표 1〉 4차 5개년 계획의 주요지표
〈표 2〉 1977~81년 인구증가율 목표
〈표 3〉 1977~81년 출생방지수 목표

제획된 인구 규모와 인구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1977~1981년 사이에 출생률은 미세하나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아버지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그 호응도가 높아 할지라도 1950년대 후반기 이후 즉 〈아기 풍년〉 시기에 낳은 출생집단이 1980년을 전후해서 가입기에 돌입하므로써 출생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즉 1975년의 출생률이 24이고 부인 1인당 평균자녀수는 3.5명인데 비추어 1981년에도 출생률은 24에 머물고 평균 자녀수는 2.9명에 이르게 된다. 환연하면 출산력(평균자녀수)은 계속해서 저하 할지라도 출생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1981년에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가임여성의 비율이 어느 시기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만약에 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가족계획이 침투되지 못하고 현재(1975년 수준)대로 유지된다면 출생률은 계속해서 상

연재 순서

1. 인구·가족계획 총괄
2. 피임 보급
3. 계몽 교육
4. 사회 정책적 지원
5. 연구 평가 사업
6. 훈련 사업
7. 지도력·지도 감독
(인구정책 심의회)
8. 재정

승할 것이고, 인구증가율은 1.6프로선으로 문화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이민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출생률과 인구증가율에 영향을 주는 가족계획사업은 보다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81년도의 인구 규모를 3천 8백 80만, 인구증가율은 1.6프로, 그리고 출생률을 24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족계획을 통해서 얼마 만큼 출생률을 방지해야 하며, 그것도 정부의 주관과 개인의 주장으로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어찌피임 형태가 달라져야 하겠는가 하며, 문제는 가족계획사업 수행 전략에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한다.

4차 5개년 계획 중 인구·가족계획 분야에 반영된 출생방지수 목표, 가족계획 실시율 목표, 그리고 잠정적 정부 피임 보급 목표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위	〈표 3〉 가족계획사업 목표				
	출생방지수(100)	피임 실적(부인 %)	전부인(100)	부인(주간)	피임(주간)
단위(월)	100	20	100	100	100
기타(월)	120	20	120	120	120
마는피임약(월)	250	20	250	250	250
콘트롤(월)	170	20	170	170	170
기타(월)	140	20	140	140	140
60	20	60	60	60	60
50	20	50	50	50	50
80	20	80	80	80	80
100	20	100	100	100	100

〈표 3〉의 암으로의 가족계획 사업 전방 다과 같은 몇 가지 원칙 밑에 세워졌다.
① 첫째로 정부의 주장에의한 피임 실천

〈5페이지로〉

지상전시실

>24<

가족계획의 벽

가족계획의 실천률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수준은 낮다. 노·만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계획 실천률이 5프로 이하인 국가의 출생률은 50, 실천률이 30프로인 경우에는 출생률이 30, 실천률이 60프로 이상인 나라에서는 출생률이 15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3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실천률은 36프로였으니까 현재의 수준은 40프로 내외로 추정 된다. 선진국가의 수준인 60프로 이상의 실천률을 이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업자체에 있어서 피임보급상의 문제점이나 계통교육상의 문제·훈련·연구·평가·재정 등 각부문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인구학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있어 앞으로의 사업은 지나온데 비해서 몇배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 이외에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사회규범이다. 성(性)의 차별을 두지 않고 소자녀가족을 이룩한다는 가치기준이 보편화 되지 않는 한 가족계획은 한계성마저 느낄지 모른다. 인구의 출산을 누구도 제한 할 수 없고 그것은 그 개인의 가치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소자녀로 만족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이 선행되어야만 가족계획사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풀려질 것으로 본다.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이어 온 대가족주의는 다산관념(多產觀念)이 강하게 지배되었고, 아울러여

필종부 및 칠거지악을 비롯한 남존여비 사상은 가계계승 및 노후 의존 등의 요건과 더불어 남아선호관념을 뿐만 아니라 박아놓고 있다. 물론 그러한 관념은 세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혼인 여대생들의 경우도 이상자녀를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도 아들과 딸을 2대 1로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본다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라고 외치는 가족계획구호도 현실과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가치변화가 사회적인 규범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기도 하겠지만 보편적인 개인의 가치기준은 일반적 사회적인 규범의 변화에 지배되기 때문에 소자녀가 범형성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족계획사업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가족계획을 무너뜨릴려면 특정집단이나 지역사회내에서 소자녀관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지원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소자녀규범형성을 위한 사회정책적지원은 자녀과정에 특전이 주어지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지원, 각종교육을 통한 규범변화를 위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사업발전 환경상에는 가족계획 자체의 노력 외에 강력한 사회제도적 지원이 두루지 않으면 두텁게 가로막힌 가족계획의 벽은 좀더 뚫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연령구조

최근의 출산률이 높은 국가는 인구연령구조가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으며, 피라미트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총 인구는 극히 많고 반대로 고령층의 인구는 적어서 뾰족한 끝을 이루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하나로써 멕시코의 연령구조는 5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9포로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불과 0.5포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웨덴

같이 최근의 출산률이 아주 낮은 나라에 있어서는 피라미트형이 아니고 거의 장방형 모양을 아룬다. 스웨덴의 연령구조는 거의 남북하여 현재 5세 미만의 인구는 4포로 되지 않으며, 60세 64세간의 인구도 5세 미만의 구와비슷하다.

멕시코에서 80 이상인구가 0.5포밖에 되지 않는 비해 스웨덴의 80 이상 인구는 약 1포로나 된다.

우리 나라의 인구조는 멕시코의 것보다는 약간 발달된 모형이지만 아피라미트형에 가까운 것이다. 미국의 구는 선진형으로서 웨덴의 그것에 가

운 장방형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인구구조는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개발상국의 인구구조는 피라미트형에 가깝다.

〈글·가족계획연구원 평가부 홍문식 주임연구원〉

가족계획 소식

한국가정 31%나 TV 가져 사는 서독·프랑스보다 많아

우리 나라 전가구의 31.2프로가 텔비전을 보유(3가구당 1대꼴)하고 있으나 유네스코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영국·서·프랑스 등)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정다. TV를 약간더(영국)가졌거나 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세계 2백여국중 1백개국이 TV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지구상에 널려 있는 TV 수상자는 총 3억 4천 8백 38만 9천 대라는 것이다. 이는 지구인구 1천명당 9.2대꼴이다.▼아시아의 경우 총보유대수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약간많은 3천 7백 대다. 이중 3분의 2 이상을 일본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1구 1천명당 2프로도 못가진 나도 아시아에서 필리핀 태국 인시아 인도 등 수두룩한데, 우리나라 76년 2월 현재 전가구의 31.2프로 TV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 TV가 한대도 없는 나라는 베네팔 라오스 스리랑카 아프가니stan 등이라고 한다.

유럽지역은 33개국중 TV가 없는 나라는 안도라(프랑스·서독접경국) 바라노(伊中部) 바티칸(교황국) 리히텐바인(佛·獨간의 大公國)이다. 유럽에서 가장 TV 보급률이 높은 나라는 스웨덴인데, 우리나라보다 3.5로가 높은 34.7프로이다. 다음이 영국(31.7프로) 서독(31.2프로) 프랑스(2.4프로)로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0.5로 더 많고, 서독은 같은비율의 대이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5.8로나 낮은 25.4프로로 불과하다.

주(阿洲)의 모로코는 영향하게도 (?) 계획고의 보급률(64.4프로)을 가지

MR. MOTHER...



시카고대학 지역사회·가족연구센터의 <커뮤니케이션·래브>에서 ◇남자엄마

가족계획 토막소식

세계

인구관계 토막소식

고 있다.

▼미국은 어떠한가? 74년 1월 현재 1억 1천 7백만대를 보유, 55.6프로에 달하고 있어 인구 2명에 1대꼴이다.

▼컬러 TV 방송은 세계 58개국에서 실시중인데, 우리나라로 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어 조만간 컬러 TV 보유국에 끼게 될듯. 컬러 TV 수상기 보유 현황은 미국이 5천 2백 55만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이 2천 1백 71만 6천 대, 서독 6백 90만대의 순위이다.

일본인 평균수명 늘어

일본후생성 발표「75년 간의 생명표」를 보면 평균수명이 남자 71.71, 여자 76.95이다. 평균수명이 늘어 이유는 유년아동률이 낮아진 것이다.

평균수명이 제일 높은나라는 스웨덴으로 남자 72.12, 여자 76.66이다. <합동통신>

미국인은 의사 자주 가

미국의 전체가구중 절반가량이 70년 4월부터 74년 10월 사이(약 4년간)에 주거지를 변경. 73년 10월부터 74년 9월까지 1년간만도 약 1천 3백 90만명이 이사했다고 상무성이 발표. <AFP>

최고 부자나라 쿠웨이트

75년도 국민소득 1만 1천 3백 65불을 올린 쿠웨이트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로 군림. 미국은 6위, 일본은 17위이다.

스위스 연방은행이 세계 40개국을 살펴 조사한 결과 공산권에서는 통독이 1위, 체코가 2위. 소득순위별 국가등수는 다음과 같다.

▼1위 쿠웨이트(1만 1천 3백 65불) ▼2위 스위스(8천 7백 40불) ▼3위 스웨덴(8천 4백 20불) ▼6위 미국(7천 20불) ▼7위 서독(6천 8백 85불) ▼8위 프랑스(6천 6백 65불) ▼17위 일본(4천 4백불) <AP>

소련, 3쌍 중 1쌍꼴로 이혼

소련은 20~40세 남녀 2천만명이 독신이며, 매년 60만쌍 즉 3쌍중 1쌍이 이혼 혹은 파탄에 직면한다는 데다.

소련의 법률가 A·밸리아브스키는 소련의 남녀는 각각 동성끼리 집단노동하기 때문에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뒤 곧 실망한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상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일보>

<자료·국제협력실 박희숙 참사보>

세계 15 인구대국(1973 추정)

나라	인구 (단위 100만)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율	도시화
1 중	800(?)	32-37	15-17	1.9-2.2	15
2 인도	580	37-39	15-17	2.2	20
3 소련	250	17.8	8.2	1	57
4 미국	210	15.3	9.3	0.6	74
5 인도네시아	130	40-45	18-21	2-2.5	17
6 일본	105	19.2	6.6	1.3	53
7 브라질	100	40-42	10-12	3	57
8 뱅글라데시	80	45-50	15-20	2.5-3	5
9 파키스탄	65	45-50	14-18	2.5-3	20
10 나이제리아	60	50+	25-27	2.5+	26 25
11 서독	60	11.4	11.8	-0.04	81
12 영국	56	14.9	12.1	0.3	81
13 아일랜드	55	16.8	9.6	0.7	53
14 멕시코	55	43-45	10-12	3.2-3.5	57
15 불가리아	52	17.2	10.8	0.6	70
21 한국	33.9	28.7	8.8	2.0	48

도시농촌인구대 문맹률

도시	농촌				
	1973 인구증가율	%	%	%	%
인구	문맹 인구 률	문맹 인구 률	인구 문맹 률	인구 문맹 률	
칠레	1.7	73	76	27	27.2
인도네시아	2.9	17	11.5	83	33.2
한국	2.0	38	5.7	62	17.8
태국	3.3	15	12.3	85	22.9
모로코	3.4	32	50.5	68	88.5
풀랜드	0.9	57	1.2	43	3.5
유고슬라비아	0.9	37	7.7	63	22.3

세계 10대 도시(단위 1천)

도시	나라	인구
뉴욕	미국	11,572
상하이	중국	11,513
파리	프랑스	10,513
밀란	이탈리아	8,590
코엑시티	멕시코	8,353
노르웨이	노르웨이	8,197
브라질	브라질	7,570
카타고	중국	7,418
밀란	미국	7,300
리옹	프랑스	7,032
카사블랑카	모로코	7,031
카페	이탈리아	6,976
알제리	알제리	5,971
부라카	모로코	5,536
울루	알제리	5,167

>지도원 보수반과제 발표<

지도원들의
귀중한 경험담 이모 저모 그모

▼장경희(서울 마포구 보건소) : 한 어머니에게 루우프를 했다. 40여일 계속 출혈이 있었다.

다른 피임방법으로 먹는 피임약을 권했다. 약값 30원도 당장 없는 집

이라서 1개월분을 의상으로 주었다. 1개월 후에 약을 타려오지 않아서 가보니 3일밖에 먹지 못하고 그 냥 있다. 약을 먹으니까 어지럽고 메시겁고해서 도저히 못먹겠다는 것이다. 그집 아저씨에게 정관수술을 권했다. 의사는 정관을 하나밖에 찾질 못했다. 아저씨는 누워서 앓았다.

15일 후에야 보건소장과 같이 가서 남은 정관마저 찾아 시술했다.

그 아저씨는 반쪽이 됐다. 동내에서 별명이 <반쪽아저씨>가 된 것이다. 그 동내에서는 <정관이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빴다. 완전한 계몽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그동내에서는 정관수술을 광장 안하기로 했다.



▼신정이(경기도 포천군 보건소) : 딸들만 가진 어느 아버지에게 정관시술을 시켰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버지가 찾아왔다.

수술 받은 자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술자리를 보잘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해서 <어디가 어때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글쎄 명울이 생긴걸 가지고...»



▼최영숙(충남 서천군 보건소) : <가족계획>이란 말만 들었지, 어디 피임방법을 하나도 모르는 대상자를 만났다.

피임방법을 죄다 얘기 했더니 <루우프>를 하고 싶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했다.

그집 친정어머니는 <보건소에서 왔다>니까 아기를 못낳게 하는 줄 알고 <많이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디.

요원들의 광장

그러니까 <맘대로하라>는 것 장에게 얘기했더니 순순이 따라 그 할머니의 협조로 그 달아네에는 세사람이나 정관수술을

▼김정자(주군 보건소) : 소로부터 60여년 어진 곳에서는 온 부부... 사정을 알 아저씨는 벌 고 돌아앉아 다. 루우프

가 출혈이 심해 빼버리고 있 신, 유산하려 왔다. <유산하면 겠느냐?>고 물었더니 <난 판결침하겠다>고 한다.

부인은 뚱뚱했다. 난판결침이 할 것 같아 아저씨에게 정관수술을 했다. 부인은 펄쩍 뛰었다. <평소 일을 하는데, 힘이 빠지면 우리 다 굽어죽는다>는 것. 그래도 설 정관시술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수술이 끝났을 때는 빙그레며 <사실 공포때문에 소리질렀어서 지른 것은 아니라고>고

▼정순화(경군 보건소) : 회때 시술받았 랍 데리고가 계몽을 했다. 경험담을 텔 도 한사람 가 없다. 그 갑자기 자기

『할머니! 보건소에 마님과 같이 한 번 놀러 오세요!』

『보건소엔 뒷하려가?』

『보건소에서는 못낳게만 하는게 아녜요. 낳아서 잘 기르게 예방주사도 맞혀야죠.』

어느날 할머니는 딸과 함께 보건소를 찾아왔다. 아기 어머니에게 쿠폰을 떼려니까 또 <애기는 많이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아낙네는 웃기만하고...』

결국 그 할머니와 친할 수 밖에 도리없었다.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이제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때서야 나는 겨우 한건의 루우프 실적을 올렸다.

▼서정자(경북 상주군 보건소) : 어느 마을 동장에게 <대상자를 좀 모아달라>고 했더니 10여명 모였다. 계룡과 권장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동장이 귀가 솔깃해졌는데, 느닷없이 동장 어머니가 오더니 산통을 깨듯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

『우리 동장은 2대독자다. 거기다가 아들 하나만 낳고 내리 딸 셋뿐이다. 어린 3대독자를 두고 어쩔 셈이냐?』

며느리가 어쩔 줄 모르고 부엌구석에 처박혀 있을 때 동내사람들도 술을 다 피해버렸다. 이를 날 나는 또 그동네에 갔다. 할머니는 <다른동네 가서 해라>고 야단쳤다. 할머니는 별명이 아예 <나팔할머니>였다. 이 할머니를 건드리면 이동내 가족계획사업은 다 망칠 것 같았다.

『할머니, 동장님은 안해도 돼요.』 그제야 안심한다. <할머니, 손자며느리는 할머니와 정이 없어 서역서역하겠지만, 손녀들은 한 20여년 할머니품에 자랐기 때문에 시집가면 놀려오라고도 할거니까, 손부보다 손녀가 더 좋지 않겠는가?>고 했다.



가 출혈이 심해 빼버리고 있 신, 유산하려 왔다. <유산하면 겠느냐?>고 물었더니 <난 판결침하겠다>고 한다.

부인은 뚱뚱했다. 난판결침이 할 것 같아 아저씨에게 정관수술을 했다. 부인은 펄쩍 뛰었다. <평소 일을 하는데, 힘이 빠지면 우리 다 굽어죽는다>는 것. 그래도 설 정관시술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다.

수술이 끝났을 때는 빙그레며 <사실 공포때문에 소리질렀어서 지른 것은 아니라고>고



▼정순화(경군 보건소) : 회때 시술받았 랍 데리고가 계몽을 했다. 경험담을 텔 도 한사람 가 없다. 그 갑자기 자기

을 걸어올렸다. <여기 명든 것 좀 보이소. 보인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랍은 <시술 받고 나서 부인 옆 주가고 하다가 보니 무릎에 멍 있다>는 것. 장내는 폭소가 터졌다. <입신풍포증에서 벗어나니까, 폴라도 이렇게 무릎에 멍들 정이 생겼다>고 해서 <정관희망 갑자기 생겼다>



▼정옥영(서구 보건소) : 라도 실적을 는 날은 피곤 리는데, 한건드는 날은 피백이 탁 풀 아들 3명 진 엄마를

들의 광장

접종까지 시켜가며 루우프권장 했
시술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었
먹는 피임약으로 바꿨다.



▼윤아지(경북 달성군 보건소) : 작년도 내가 보자보건 요원일 때다. 남편은 결핵환자이고, 부인은 임신이어서 조산원인 내가 진찰을 한결과 이상임신이었다. 결국 쌍자를 낳았는데, 딸 1명 아들 1명이 자주 찾아갔다. 비밀이 없는 사례도록 친했다.

보와 아기는 영양실조가 되었을
나는 영양제를 가져다 주었다. 열
쌍둥이 엄마는 루우프를 하게

〈정리·편집실〉

선임 지도원에게 알림

「가족계획소식」을 선임지도원 앞으로 발송하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월례회 때나 공문발송함을 통해 음면계통원에게 책임지고 전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불성실하게 요원에게 고루고루 전해주지 않는 선임지도원들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소식」은 가족계획요원이면 누구나 매달 1부씩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못 받으신 요원은 월례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족계획소식」편집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번 요원교육시 한호나 두호혹은 여려호를 못 받은 요원의 수를 조사해보니 꽤 많았습니다. 「가족계획소식」을 불성실하게 취급하는 보건소를 보면 울진·고창·포천·강주·영광·하동·예천·영암·나주등입니다.

다음에 만약 잘 전달되지 않은 군이 있으면 그군의 선임지도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정식공문으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족계획소식」은 정부사업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여론분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음을 새삼 인식하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부 편집실〉

나는 어머니들과 이렇게 친했다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계몽원 정순규

저희 서운면 우수어머니회를 소개해 드리면...

<송죽 어머니회>라고, 송죽 부락에 있습니다. 송죽부락은 82호, 가입유배우수는 52명, 현재 어머니회원수는

경, 회원증가족계획 실천율은 70프입니다. <송죽 어머니회>가 조직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머니회를 조직한 당시인 1668년입니다. 초대회장은 이영순씨로 회원은 3명이었습니다.

당시 분기별로 1개 어머니회 5백원씩 수고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걸 모았다가 이자들이를 했다. 회원 1인당 배당금 6백원 되었을 때, 어머니회원을 더 모았던 27명이 됐습니다. 이때 이

송죽어머니회>에서는 구관사업을 시8개월만에 1인당 배당금은 경되어 5천5백원이 되었습니다.

월 월례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새 피임을 권장하며, 회원은 가족계

획을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금고를 늘리기 위해 72년 4월 남의 밭 1천 2백평을 빌려 밭벼를 갈아 심고, 어머니회원들이 <내 농사> 깃다심이 하여 틀들이 거들었읍니다. 다만 쟁기질·타작만 남자들의 손을 빌었읍니다. 하루 일을 안 나오는 어머니는 품삯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추수를 하니, 찹쌀 12가마가 나왔읍니다. 당시 찹쌀값은 가마당 1만5백원 정도였읍니다.

73년 여름에는 군파 도에서 비퇴증산을 하기 위해 우수단체 및 부락에 시상금을 걸었읍니다. 송죽어머니회는 경기도에서 2등을 해서 2만원을 받고, 안성군에서 1등을 해서 벽시계 1개를 상품으로 받아 어머니회 기금으로 삼았읍니다.

<송죽 어머니회> 기금은 회원 1인당 연간 배당금9만5천원이 되었고, 현재 기본재산으로는 8백40평과 동리에 구관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회를 이용한 가족계획사업에는 한 두 가지 애로가 따릅니다. 즉 실천방법에 있어 한 사람이 먹

는 피임약을 이용하여 <좋다>고 하면 전원이 먹는 피임약으로 피임하고, 다른 한 사람이 <먹는 피임약보다는 콘들이 나온 것 같다>고 하면 또 전원이 콘들으로 쓸리는 경향이 있어 요원들은 애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금년 가을 어머니회 배당금이 증가되면 그중 일부를 <영구피임을 위한 시술비 기금>으로 조성시키고자 합니다. 영구피임 대상자는 전원, 복강경이나 미니랩시술을 단체로 실시할까 합니다.

저희 면은 이 <송죽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점차 영구피임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어머니회를 좀 더 활동 있는 단체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고려했으면 합니다.

① 어머니회장의 대우문제입니다. 어머니 회장에게 임명장 같은 것이라도 하나씩 안겨준다면 훨씬 의욕적으로 사업에 협조할 것 같습니다.

② 어머니회장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루우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루우프 이동시술 등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회장님님이 권장해서 모시고 오는 분에 대해서는 1 사람당 2백원씩 어머니회장님님께 권리비조로 현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먹는 피임약 수수료까지도 어머니회장님께 드리면 어떨까?>하고 생각중입니다.

③ 어머니회장님은 다른 회원들보다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회장님들에게 지식을 넣어 줄 수 있는 발간물을 무료로 공급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끝>

<1페이지에서 계속>

을 점차 자기부담을 늘리는 즉개인의 주장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약제기구의 염가공급, 명목상의 수수료부담 및 상업망 활용)

② 둘째로 일시적인 피임방법보다는 영구적 방법을 채택해 하는 전략이다.

③ 세째로 피임 실패로 인한 추가자녀를 최대한 막는다. 특히 모성보건과 함께 월경조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처한다.

물론 위 세가지 원칙이 피임효과(출생방지수)피임의 경제성(효율) 그리고 출산력저하가 사회의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등을 충분히 감안 하였음을 첨기한다.

예컨대 도시저소득층이나 오지·벽촌 주민에게 의료혜택과 가족계획을 병행추진 하므로써 일석이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 고려되었다.

〈글·가족계획연구원 고갑석 평가부장〉

바다 위에 비가 내린다. 물결높이 1•5미터내지 2미터. 배는 섬에서 섬으로 파도를 타고 다닌다. 경기도 용진군보건소는 9개면 1백18개 섬사람들을 상대로 가족계획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청과 보건소만 인천시내에 있을 뿐, 보건소장이하 모든 직원 거의 섬에 출장나가기 일쑤다. 7월 1일, 오늘도 보건소장 책상위에는 먼지가 빼얗게 앉아 있다. 출근을 안하고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직접 피임보급을 하러 섬과 섬을 돌아다니느라 사무실에 앉아있을 새가 없다.

포종주의 보건소장 내리면 인천 앞바다에 뜬 모든 배는 전부 빨이 끓인다. 김영순(56)소장과 장옥환·신영단지도원도 섬에 출장 갔다가 오늘 빨이 끓었다. 보건소에는 총각직원 한명과 이제 발령 받은 방역계장 한명이 남아서 사무를 볼 뿐, 모두 출장이다. 교육이다, 다 가지고 있다. 서울서 통근한다는 젊은 총각직원이 마침 방역비상에 또 빨이 끓여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도 현황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가족계획관계 담당직원이 아니라도 가족계획사업에 환했다.



◇염서준지소장과 결핵관리요원

무슨 서류가 어디에 있고, 무슨 자료가 어느서류에 끼어 있는 것 까지 다 알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기에 참 편리 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선임지도원이 공석이다. 장옥환지도원(간호보조원)이 대신하고 있다. 이제 곧 전미숙씨(간호원)가 새로 지도원으로 내정되어 발령이 날거라는 것. 9개면이 모두 섬인 용진군보건소 가족계획팀을 이 3명의 아가씨가 맡아서 하게되고, 각면마다 또 9명의 서류상 미혼요원들이 일선사업을 맡고 있다.

대청은 요원이 공석이지만 현재 지도원으로 내정된 결핵관리요원 미스 전이 파견되어 있다.

각면요원은 이수덕(영종) 최혜영(복도) 서정례(용유) 이강숙(송림) 손순희(백령) 전미숙(대청) 문영숙(덕적) 이익수(영흥) 권애자(대부)씨로 모두 서류상 미스. 평균연령은 25~26세. 한참 활동할 나이이다. 루우프시술은 소장

>도서지방 탐방 ①<

118개 섬을 가진 용진군 보건소 그 가족계획사업을 돌아보고

파 신영단·장옥환요원이 말고 있다.

공의가 없는 곳은 덕적면 뿐. 공의중 5군데는 파견수련의사로, 복도에는 안파, 용유에는 피부과, 송림에는 외과, 백령에는 비뇨기과, 대청에는 정형외과가 전공분야이므로 큰 뒷받침은 되지 못한다. 병원선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인천까지 나와야 한다.

옹진군 총인구는 74년 10월 1일 현재 5만 3천 6백 67명. 이 중 남자가 2만



◇비안개 자족한영종부두에서……。

이수덕요원(우)과나인자모자보건요원.

7천 2백 11명, 여자가 남자보다 적은 2만 6천 4백 56명. 만 1년후인 75년 10월 1일 현재 1만 2백 62가구 중 인구가 5만 1천 2백 47명으로 2천 4백 20명이 줄었다. 도시로 갈매기처럼 날아가버린 탓일까? 남자는 1천 2백 38명이 줄었고, 여자는 이보다 더많은 1천 2백 72명이 줄었다.

1백 18개 섬을 모두 합한 총면적은 2백 83.72평방킬로. 면적으로 봐서는 덕적·영종·백령·영흥·대부·용유·복도·대청·송림 순위로 크지만 섬 하나로 따지면 백령도가 제일 크고 다음이 영종도. 제일 큰 면인 덕적은 49.71평방킬로, 제일 적은 송림면(연평도)은 7.13평방킬로로.

이러한 서해안의 도서 용진군의 상반기 가족계획 천체목표량과 실적은 어떤 헛가? 정관40건에 실적 9건(5월 말현재), 루우프 3백 20건에 99건(6월 말현재)은 비공식통계로 1백 20여건,

먹는 피임약은 매달 6백 30사이클에 6백 40사이클이 나간다. 콘돔은 매달 2백 택티에 역시 2백 택이상 나가고, 난관 10건에 상반기 현재 7건, 인공임신중절 5건 실적.

정관보다가는 난관실적이 좋고, 남편을 상대로 하는 피임방법보다가는 성피임방법이 인기 있다. 요원이 미혼이고, 남아선호사상이 아직도 인조 앞 바다에 뜬 섬에 강하게 남아 있거나 탓일까(?). 남편을 위해서인지 여자 스스로가 남편정관보다는 자기 난관수술을 빙겠다고 나선다는 것.

보건소 요원들은 배를 타고 파도를 가르며 진종일 가야하는 곳도 있다. 백령은 12시간, 대청은 11시간, 립은 8시간, 덕적은 5시간, 복도는 유는 2시간, 영흥과 대부는 1시간 30분, 영종은 30여분 걸린다.

이동시술반 대신 병원선이 동별로 진 섬으로 연 20여회 다닌다.

섬교통이 제일 불편한 곳은 립고 면. 차는 한대도 없는 섬에 자전자가 1대뿐. 이 섬에서는 자전거를 고 다니기가 오히려 불편할 정도다.

송림은 워낙 바다에 뜬 섬이다. 그러나 차가 있으나마나한 섬. 그러나 없는가 보다는 낫다고 한다. 교통이 제일 좋음은 백령도. 여기서는 인천시내같이 차가 자주 다닌다.

군청에서는 5~6개면에 자전거를 1대씩 사주었다. 보건요원이 다 사용하므로 월급 가지고 산 요원도 있다. 1대쯤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곳은 서해방위를 위해 많은 군인들이 주재하고 있는데 군인가족자립사업에 있어서는 최근 신영단지도원이 정관계물을 응변하듯 해서 우기가 있다고 하나 시술실적으로는 결까지는 시키지 못했다. 블임시술로 당자는 지정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술반인 섬에 들어가야 실적이 오는 사업. 루우프는 보건소에서 나가 주기만하면 실적이 펑펑오르고 그 정관실적이 없는 곳은 복도·덕적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복도 1건, 용유·영흥이 2건씩. 올해 송림면 루우프 적이 한전도 없길래 의아해했더니, 적 거진 출장 못나갔다'는 대답.

「루우프 시설비 5백원은 있으나… 권장비도 올려줘야합니다. 판실적 때문에 요원들이 고민해요. 염서준소장은 <공짜에서 오는 부작용 있다>면서…」

<다음페이지로>

⑪출산조절(出產調節; Fertility Control)

이것은 매우 넓은 의미의 자녀수 조절이란 뜻으로, 지극히 정확한 개념을 갖는 용어는 아니나, 출산의 원인 행위가 되는 결혼에서 출산까지의 단계, 즉 ①결혼 ②성교 ③수정·수태 ④임신 ⑤출산의 여러 단계에서 그 기도 조절 또는 제한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출산조절의 행위 또는 그 방법으로는 결혼의 연기·영구독신생활·금욕·수태조절·불임수술·인공임신중절 또는 낙태, 출생후의 신생아살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결혼의 연기·영구독신생활·금욕·신생아살해 등은 출산조절의 목적에 수반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욕이란 현실적으로 영속될 수 없으며, 신생아살해는 죄악행위란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한편 출산조절이란 현실적으로 출을 감소시킨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려 있는 용어이나, 출산을 증가시킬 계획적인 의도, 예컨대 결혼의 때·금지령, (태아)불육증 (infertility) 치료 등도 출산조절의 개념에 포함된다.

⑫산아조절(產兒調節; Birth Control)

이 용어는 출생아수와 출생간격 및 출생시기를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성교관계로 부터 출산까지의 단

가족계획용어집

계 즉 ①성교 ②수정·수태 ③임신 ④출산에 대한 기능을 일시적으로 조절 혹은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아조절의 행위 또는 방법으로는 금욕·수태조절·불임수술·인공유산이 포함된다.

결혼의 연기·영구독신생활·신생아살해등은 이 용어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그것은 <출생아수만을 조절하느냐?> 아니면 <출생아수와 더불어 터울도 조절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유별되는 내용이다. [참조: 국어대사전 (이희승편)]

⑬가족제한(家族制限; Family Limitation)

이 용어는 금욕·수태조절·불임수술·인공임신중절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성교관계에 있는 부부의 출생아수를 계획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제한의 방법에는 신생아 살해도 포함된다.

이 용어의 개념은 출생아수를 조절하는 노력으로, 반드시 출생의 심기와 관련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산아조절과 다르나, 일상언어에서 때로는 산아조절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동의어: 산아조절]

⑭가족계획(家族計劃; Family Planning)

가족계획이란 출생아수와 출생간격 및 그 빈도를, 가정복지와의 균형 하에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피임법 사용·불임수술 등의 수정·수태의 방지를 통한 산아조절이라 할 수 있다.

가족계획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산아조절의 개칭이나 가정복지의 추구란 점에서 단순한 산아조절이나 피임이라는 말과는 그 이념을 달리하며 출생조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인공임신중절 등을 포함하는 산아조절 (Birth Control)에 비하여 가족계획은 더 제한적 의미로 사용된다.

물론 가족계획은 개개의 가정의 추구적 결정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 이기는 하나, 이의 수용은 면 안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사회 및 경제발전과 크게 관련되는 것이다.

가족계획은 한 마디로 가정복지와 국가 및 사회발전을 대전제로 하고 출생아수와 그 빈도를 조절함으로써 인구의 조절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조: 출생아수·출생간격·가정복지·산아조절·출생조절·인구조절]
〈공동집필·평가부 최순 주임연구원, 연구부 이영훈 연구원, 편집실〉

<6페이지에서 계속>

「<목표량기압>도 중앙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여기 일선에서는 있읍니다. 없으려면 아주 짹. 없어서 요원들을 불안해하지 말게 해야죠? 정관실적 때문에 작년에 보건소 계장 한사람이 시찰서를 썼어요. 지역을 감안해서 빈틈없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영종면에는 유달리 루우프 실적이 목표량 57건에 실적 31건이다. 이곳 뜻의는 58년부터 20여년 자리잡고 있면서 사람들에게 의료시혜를 베풀고 있어 루우프정도는 잘되고 있는 편. 그래서 계통도 잘돼있는 섭중의 하느. 이곳 이수덕(28)요원은 모자보건원 나인자(24)양과(작공)으로 다니면서 계통. 결핵요원 장옥화(25)양도 이족계획사업에 퍽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씨로보아 이십의 사업은 걱정거리가 아닌듯. 유배우 가입여성 1천 2·여명에 실천률 45프로. 잘되는 편이다.

영종면 요원은 섭가족계획사업의 애매를 이렇게 털어놓는다.

「정관이 문제예요. 교통비·식사비를 제가 내더라도 할 사람만 있다면 반갑지요. 과거 정관하겠다고 인천까지 나가서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하겠다는 그 수술은 안하고 데이트신청 먼저하는 <암체족>도 있었어요.」

미혼요원들이 정관을 권장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너가 해 봤느냐?」면서 농담으로 늘리기 일쑤. 군청에서나 협회지부혹은 상부기관에서 정식으로 계몽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몇년전 4명이나 한꺼번에 실적이고른 적이 있다.

모자보건요원의 입장으로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등록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 놓일 때도 있다. 반면 가족계획요원은 알맞게 또는 못낳게 하는 입장—이건 서로 일선사업에 <상반되는 계몽>이라고 요원들은 웃는다.

섬 노인들은 가족계획을 찬성·반대 반반이나, 아들 낳는 건 끝까지 찬성

만하고 있다. 아들이 없으면 낳을 때 까지피임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 많은 어머니들은 거의 루우프를 다 끼워봤다. 루우프시술을 새로 받을 사람이라곤 젊은층 밖에 없다. 젊은층은 피임을 권장하기에 어렵다.

정관은 도시에서 잘되고, 난관은 섬에서 반응이 좋다. 그러므로 도서지방의 정관목표량을 난관으로 돌려주기를 요원들은 바란다.

난관시술은 가족계획지정병의원이 비지정병의원보다 돈을 더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비지정 개인병의원에 난관수술하려 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렇게 되면 루온상 비지정 개인병의원에 가서 도장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처녀가 산부인과문을 들락거리기가 눈치(?) 보인다는 것. 미혼요원들에게는 피상한 애로(?)까지 따르는 모양이다.

루우프·벳고동소리를 들으면서 두둥실하늘바다사리를 만날 때는 좋았지만... <경기도 용진군에서→신세훈연구원>

18개국에서 79명 참석

가족계획 연구원, 국제 인구 문제 세미나에



◇ 12일 국제인구문제하기세미나 개회식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항공편을 알아보는 외국참석자들.

가족계획연구원에서 막을 연 국제인구문제 하기세미나에 18개국의 인구및 가족계획전문가 79명이 참석,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가족계획연구원·한국개발원·하와이대학 등서인구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보사부가 후원한 이 세미나는 「인구의 변천과정」이란 주제 아래 하와이대학에서 4주간 열린 뒤 12일부터 13일까지 가족계획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한국개발원에서 속개됐는데, 첫날 개회식에는 신희설당원 국제협력담당의 사회로 한대우가족계획연구원장의 개회사를 비롯 보건사

노동청 지방상담요원 훈련 사업장 보건관리 요원도

사업장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노동청 지방사무소 산업상담요원과 산업장보건관리요원에게 가족계획연구원에서 인구및 가족계획에 관한 훈련을 실시했다.

노동청요원의 이같은 교육은 전국 사업장 집단근로자들을 통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해당 요원들로 하여금 계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제 1기 노동청 지방사무소 산업상담요원 32명은 지난 4월 26일부터 1주일간, 제 1기 산업장 보건관리요원은 5월 17일부터 1주일간 훈련을 받았다. 산업장보건관리의사 31명도 훈련을 받은 바 있다.

회부장관(박승합차관대독)의 축사, 제임스 알 브래디 미국국제개발처장의 축사(헤리만대독), 인구문제연구소장(하와이 대 박재빈교수대독)의 인사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국과 과정은 —
▼참가국 : 한국 미국 일본 아프가

매월 말일 반상회 때 가족계획 계몽시간 넣겠다 송내무부 행정과장, 평가세미나 특강서 밝혀

76년도 가족계획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5월 28~29일 양일간 가족계획연구원 강당 및 각회의실에서 열린 이 평가세미나는 보사부주관으로 가족계획연구원과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공동주최. 시도실무계장·가협지부사무국장·어머니회장·가협·보사부·가족계획연구원직원 및 관계기관 인사 약 80여명이 참석.

첫날아침은 한대우가족계획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승합보사부차관의 치사·이종진가협이사장의 격려사가 있은 다음 보사부·가협·연구원별로 사업방향을 제시. 오후부터는 특강과 주제·사례발표에 들어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언중 내무부 행정과장은 특강을 통해 「두고보십시오. 매월 말일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통해 일제히 회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 가족계획시간을 넣나 안녕나를 두고

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블랙라데쉬
유중국 홍콩 인디어 인도네시아
린 말레이지아 네덜 뉴질랜드 파
스탄 필리핀 태국

▼과정 : ① 12일 ② 가족계획연구원
개(홍문식) ③ 정부가족계획사업(한규호)
④ 전시실경학
⑤ 13일 : ⑥ 인구와 경제(한기준) ⑦
국의 인공유산과 모자보건법(안계준)
⑧ 한국가족계획 홍보사업과 어머니회
활동(윤성희) ⑨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성진) ⑩ 한국의 자녀수에 따른 피임수
천 형태

⑪ 14일 : 휴전선(비무장지대)에 가서
점심후 땅굴경학뒤 귀경
⑫ 15일 ~ 16일까지는 한국개발원(KI
I)에서 개최 : 15일 ⑬ 한국의 도시·농
촌 인구이동(윤중주) ⑭ 한국여성의 노
동참여(조향) ⑮ 한국의 인구행동양식의
구조(이상주) ⑯ 한국 인구정책(김선용)
⑰ 16일 서울대등 인구및 가족계획기
현지견학.

부읍면장 가족계획교육

가족계획연, 5회 5백 53명

작년에이어 올해도 전국읍면의 읍장·부면장교육을 마쳤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8~22일) 5백 53명이 족계획연구원에서 인구및 가족계획 훈련을 모두 마쳤다. 기별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8기 (6·1~2) 1백 4명 ▼ 19기 (6·8~9) 1백 15명 ▼ 20기 (6·15~16) 1백 10명 ▼ 21기 (6·22~23) 1백 13명 ▼ 22기 (6·29~30) 1백 11명 ▼ 23기 5백 53명.

보십시오.」라고 다짐하며 「새마을사업을 통한 회의때마다 가족계획시간을 넣도록 행정적으로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은 이세미나의 공동주체인 보건보급유료화방안과, 어머니회 활동방법에 대해 분과별로 토의, 바탕직한 결론을 얻었다. 분과토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시도별사업보고와 분과토의결과발표 및 종합토의가 있은 후 한규호보사부 보건복지부관의 「좋은안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혜화사를로 이를간의 막을 모두 내렸다.

보사국장 회의 보사부, 가족계획연구원서

보사부는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및 각도 보건사회국장 회의를 6월 21일 가족계획연구원에서 개최했다.